

# 치유는 각성awakening이다



일러스트 | 신창우

글 | 김정근

요즘 내가 주로 하는 일과는 책의 숲에서 치유서를 가려내는 일이다. 많은 책들 가운데서 사람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을 갖춘 타이틀을 발견해 내고 목록을 만들고 초록을 작성한다. 이처럼 새로 선정된 치유서는 실제 독서치료 모임에서 상황에 따라 적용하고 참여자들의 반응을 관찰한다. 반응이 좋으면 치유서로서 신빙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활용하게 된다.

흥미를 가지고 이 일을 해온 지도 벌써 여러 해 되었다. 치유모임이 있는 날 선정된 상황과 치유서가 참여자들의 당면한 요구에 잘 맞아떨어졌을 때는 강의실은 그야말로 감동이 넘친다. 그동안의 경험에서 보면 책읽기를 통한 사람의 '변화' 만큼 당사자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도 드문 것 같다. 독서치료 모임에서는 이처럼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 앞에서 서로 웃고 즐거워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한편 치유서를 발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근래 내가 유독 주목하게 된 점이 있다. 그것은 우리 출판시장에 전에 볼 수 없었던 '전복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내용물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사실이다. 이 흐름은 1990년대에 시작된 이래 새 천년에 들어오면서 가속이 붙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거대담론이 지배하던 지난날과는 다른 의미에서 '이단적이고' 새로운 시대를 증언하는 책들의 출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책들은 많은 경우 지은이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치유서로 분류되어 치유모임의 현장에서 활용된다. 나는 이 사실을 확인해 가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어느덧 '상처 주는' 사회에서 '치유하는' 사회로 조금씩 이동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아마도 이 사실을 지은이들이 알게 된다면 의외의 소득 앞에서 흐뭇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치유서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입장에서 이런 책들의 출현을 내심 무척 반기고 있다. 그것은 그동안의 경험에서 치유는 결코 단순한 위안이 아니며 내적인 각성이라는 발견을 하게 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흔히 위로하는 책을 치유서라고 하는데 나는 견해를 달리한다. 위로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으며 때가 지나면 아픈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책을 읽은 후 각성이 있고 통찰이 생기면 사정은 많이 달라진다. 어느 정도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내게는 각성을 주고 삶의 재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책이 치유서다. 이것은 나와 협력하는 젊은 연구자들도 조심스레 동의하고 몸으로 느껴가는 부분이다.

최근에도 나는 각성을 주는 계통의 책들을 여러 권 보았다. 내가 접한 책 가운데 전인권의 《남자의 탄생》(푸른숲, 2003), 서명숙의 《흡연 여성 잔혹사》(웅진닷컴, 2004), 오한숙희의 《수다가 사람 살려》(웅진닷컴, 2004)는 각성제로 분류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들 책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보통 통하는 관점이 완전히 뒤집혀 있다. 변할 수 없는 천부의 그 무엇처럼 보이던 가치가 사실은 사람

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진실이 드러난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제껏 더 이상 몸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었던 가치가 사실은 오래 전에 이미 갈아 치워졌어야 할 것이었다는 이야기도 된다. 시대착오적인 억압의 잔재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많은 사람을 병들게 한다.

전인권의 책은 여러 면에서 파격적이다. 시대의 흐름을 말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전이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책이었을 것이다. 이 책의 미덕은 용기와 솔직함에 있다. 내용은 정신적인 웰빙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요구에 적합하다. 한국적인 '가부장'의 탄생 비밀을 밝히고 있어 흥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전한다.

이 책의 지은이는 자신이 1960년대에 통과한 유년기(5~12세)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때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가치관, 성격, 의식 등 인성의 형성과정을 꼼꼼하게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가 찾아낸 '한국 남자'의 인간형은 '동굴 속의 황제'다. 다시 말해 '권위주의와 나르시시즘의 동굴에 갇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다. 권위주의는 유년시절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나르시시즘은 어머니의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빚어낸 산물이다. 지은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 아이의 가족 로맨스를 분석해 보니, 그 결과는 철저히 한국적인 남자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밝힌다. 지은이에 의하면 한국적인 남자의 탄생은 상당부분 유년시절에 이뤄진다. 그는 이것에 대한 치유 방법으로 내 안의 아버지, 네 안의 아버지를 '살해' 할 것을 제안한다. 파격적인 면에서 서명숙의 책은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지은이는 개인적인 흡연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통제와 여성문제를 읽어낸다. 개인의 흡연사를 드러냄으로써 이 땅에서 페미니즘의 해석이라고 하는 큰 과제에 도전한다.

서명숙은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형사들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 제일 먼저 감춘 것이 이념서적이거나 노동 관련 팸플릿이 아니라 담배와 라이터, 재떨이 같은 흡연의 흔적이었다고 적고 있다. 이것은 자신이 70년대에 시국사건으로 경찰서에 붙들려가서 가방에 담배와 라이터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갈보들처럼 담배나 뽕뽕 피워대면서, 뭐 나라 걱정한다구? 네년들이나 똑 바로 해"라는 욕설과 함께 따귀를 얻어맞았던 기억의 반응이었다. 지은이의 대담한 문화기술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편견의 실상을 유쾌하게 뒤집으며 야유한다.

기존의 질서에 겁 없는 이의를 제기하기는 오한숙희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은이는 '말없이 점잖은 사람'을 특히 우대하는 우리 사회에서 '수다가 사람 살린다'고 선언한다. 이 선언 앞에서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볼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지금도 '참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온다'는 빈정거림의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

지은이는 말한다. "내가 정의하는 수다는 바로 자기 이야기다. '나'라는 주체가 빠진 이야기는 진정한 의미의 수다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 어떤 경험에 대해서 말할 때, 현상적인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땠다'는 자신의 감정, 생각, 판

단을 말해야 비로소 수다가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떻게 들리는가? 이것이 이른바 오한숙희식 '수다요법'의 핵심이다.

이 책에 대해 사회학자 이이효재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한숙희의 '말'과 '수다'에는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을 살리고, 이미 죽은 혼마져 부활시키는 그 무엇이 있다. 그의 글은 영롱한 구슬이 굴러가듯 아름답고 재미있어 독자들을 사로잡는다. 그는 말과 수다로써 자아를 세우고 인간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다는 상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다."

독서치료와 이 세 권의 책을 관련지으며 나는 이런 정리를 하게 된다. 치유서는 진보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성질을 띤다. 그래서 각성을 준다. 기존의 질서에 집착하거나 고착된 내용을 전해서는 미봉책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상처를 은폐하는 결과를 낳는다. 깨우치고 과감하게 벗어나도록 하는 데서 치유의 길이 열린다. ■■

**이 글을 쓴 김정은**은 도미니칸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토론토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과 교육학을 전공,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이며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의 지도교수로 있다. 주요 논문과 칼럼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문제와 독서치료》 《스캇 팩을 아십니까》 《치유서란 무엇인가》 《치료사는 누구인가》 등이 있다.